



KMK 그룹 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
차세대 신발산업 경영의 핵심주역으로 떠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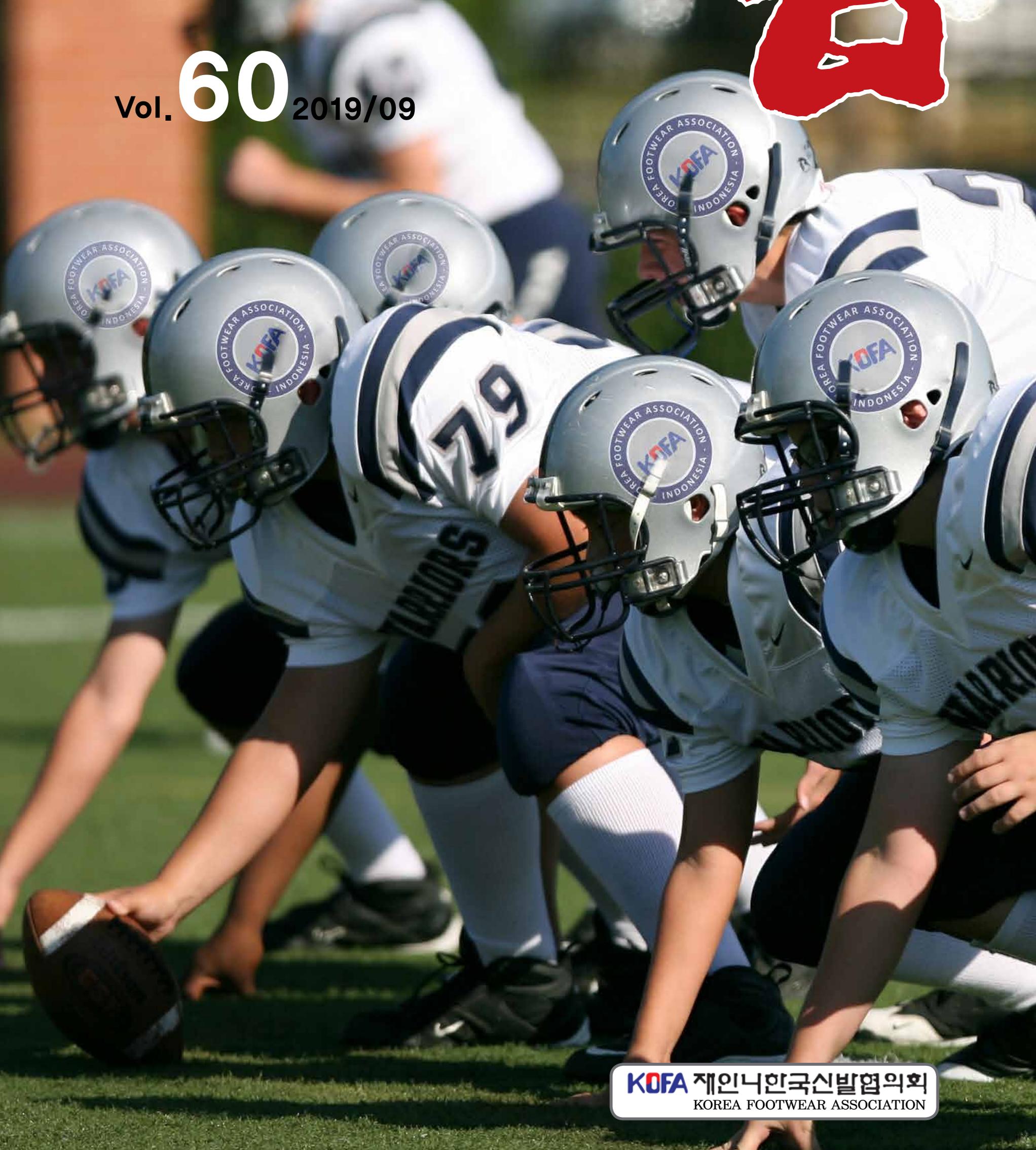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MONTHLY KOFA

코파의

치요

Vol. **60** 2019/09



제5대 인도네시아코참 회장에 송창근 KMK회장 취임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KOCHAM) 제5대 인도네시아 코참 회장에 송창근 KMK 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송 회장은 2013년과 2016년 제3대, 제4대 인니코참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3회 연속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취임행사는 땅그랑 BSD에서 열렸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김창범대사를 비롯해 박재한 한인회장, 신기업 한인회 명예고문, 이종윤 코파 수석부회장, 안창섭 코가회장, 채만용 땅그랑반튼한인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와 코참회원사들이 참석해 코참 5대 출범식을 알렸다.

송창근 5대회장은 취임사에서 코참의 역할과 존재가 한인기업을 위해 꼭 필요 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코참은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체라고 말했다.

김창범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코참을 비롯해 암참, 재팬 클럽과 영향력있는 목소리를 함께 높여 인도네시아와 우리한인기업을 위해 대사관에서 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건지 지혜를 모아 함께 헤쳐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재한 한인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화합과 융화로 잘 이끌어 나가주신 송창근 회장에게 감사 드리며 한인사

회에 더욱 성장해 나가는 코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행사에 스타트업기업 투자설명회 까지 함께 열어 명실상부 코참의 색깔과 이념을 살린 뜻있는 5대 출범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대규모 정전 보상금, 10월 지급 예정



리니 마리야니 수마르노(Rini Mariani Soemarno)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19일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섬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국영 전력 PLN이 오는 10월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액은 총액 8,390억 루피아로 추정되고 있다.

PLN의 드위 흥보 담당 부사장은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9월에 지불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두를 것” 이라고 말했다.

PLN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9월 이후 각 고객에게 통지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 기준과 PLN의 전기 분배 비용에 관한 에너지 광물자원부장관령 ‘2017년 제27호’ 를 기반으로 보조금

을 받은 고객은 다음 달 전기료의 20%를,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은 3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상 금액은 PLN 웹사이트 <<https://layan.pln.co.id/InfoTm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ormasi Kompensasi’ 를 클릭하여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면 보상 예정액이 표시된다.

인니, 노동법 개정 계획...노동계 반발에 주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법 ‘2003년 제13호’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투자 유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노동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될 수 있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경제계는 현행 노동법을 계속 유지한다면 해외 투자가 다른 신흥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

계는 현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액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이 특히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투자 의욕을 방해하며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법 개정은 2015~2019년 국가 입법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Apindo)의 소프얀 고문은 “현행 노동법은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오래된 법이다” 라며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 밀릴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합(KSPI)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결국 노동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의회가 소집된 16일에는 의회 앞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노조, 경제계, 국민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라며 “개정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2011년에도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결국 철회됐다.

Apindo의 하리아디 협회장은 “노동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대변인을 통해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공식 견해에 대해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KMK 그룹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 차세대 신발산업 경영의 핵심주역으로 떠올라

지난 8월 5일 KMK 그룹의 매니지먼트 행사가 땅그랑소 재 임페리얼cc에서 열렸다. 이번 매니지먼트 미팅은 예년과 달리 차세대 신발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그룹 전 매니지먼트 팀에게 KMK 그룹의 성장 동력을 위해 참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의 선두

에서 그룹의 초당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Mr. Dino Patti Djalal (Previous Deputy Foreign Minister of Indonesia)도 행사에 참석하여 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의 그룹 조인의 축하 메시지와 그룹의 매니지먼트 팀들에게 인생과 커리어에 관한 강연이 있었고 가수 Tantri의 멋진 공연으로 이어졌다.

한편 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은 그룹의 모든 분들에



▲ KMK 그룹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

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KMK 그룹 모든 임직원이 자랑스럽고 그룹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관행과

고착화된 방식은 우리에게 미래를 줄 수 없고 지금이 내일을 기약 할 수 없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변화에 이끌려가는 그룹이 아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변화의 출발이다. 그러나 생각의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변화할 수 있다. 행동 없는 변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KMK Group은 올해 창립 29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30년, 50년이 있으며, 우리에게 다가올 10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년 후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KMK 그룹의 차세대 리더그룹의 중심에서 그룹뿐만 아니라 지구촌 신발산업을 주도해 나갈 Jimmy Song (송진은) 부사장의 활약이 사뭇 기대되고 한국 신발산업의 미래를 활짝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네시아 새 수도는 보르네오섬 동부...조꼬위, 공식발표 동갈리만판 두 개 군으로 결정...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새 수도를 보르네오섬의 동(東) 갈리만판에 건설하겠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수도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동갈리만판의 북 뻘나잠 빠세르군(Penajam Paser Utara)과 꾸파이 까르파누가라(Kutai Kartanegara)군 일부” 라고 발표했다.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3 번째로 큰 섬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3개 국가의 영토로 나뉘어져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동갈리만판은 홍수, 쓰나미와 지진, 산불, 화산 등 재난 위험이 적고,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 조꼬위도도 대통령

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를 이전하면 해당 지역의 산업화가 뒤따를 것”이라며 “자카르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와 금융 도시로 계속 개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의 57%가 자바섬에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갈리만판에 행정수

도를 건설하고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분산하기로 정했다.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cm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1단계에서는 인구

150만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며, 이 중에는 20만명의 공무원과 2만5천여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포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민관협력 형태’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라 재원 마련이 신행정수도 계획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LIGHT+
The Solutions of LED

인니 현지 생산
LED 조명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COFINDO, ISO9001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펙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코오롱FnC, '아카이브 앱크' 출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양가죽 소재의 신발, 가방 등 잡화 브랜드 '아카이브 앱크' (사진)를 최근 출시했다.

아카이브 앱크는 '기록보관소' 라는 뜻의 '아카이브'와 '예리한 감각으로 사람을 연구하다' 라는 문장(etudes for people with a keen sense)의 약자(pke)를 합해 만든 브랜드명이다.

가성비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신발과 가방으로 비즈니스 우먼을 겨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격은 대부분 10만~20만원 대다.

플랫슈즈와 로퍼 등 신발은 10만원 후반이고, 플링백 스윙백 시소백 등 가방은 10만~20만원대다.

출근할 때나 주말 야외에 나갈 때도 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소재는 부드러운 양가죽을 선택했다.

양가죽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타 브랜드에선 보기 어려운 색상으로 염색했다.

대표 색상인 '앱크 핑크' '앱크 브릭' '앱크 그린'은 톤다운된 핑크, 갈색, 녹색으로 모두 흔하지 않은 색이다.

또 '포레스트 나이트' (진

한 녹색) '테니스 볼' (형광에 가까운 연두색) 등 독특한 색상과 색상명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했다.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 '블로냐 기법'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이탈리아 블로냐 지역에서 시작한 이 제작 공법은 명품 구두 브랜드들이 주로 사용한다.

신발 안에 인솔(깔창)을 대지 않고 안감을 가죽의 옆면, 안창까지 연결해 하나의 주머니처럼 제작하는 방식이다.

발을 감싸줘 편안함을 준다. 아카이브 앱크는 올해 4월 직원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에서 시작했다.

직원들이 온라인 시장을 겨냥해 독창적인 신발을 기획했고, 샘플을 출시했다.

코오롱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4개월간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인기 디자인과 색상을 중심으로 지난 23일 정식으로 출시했다.

코오롱FnC는 아카이브 앱크를 시작으로 사내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아카이브 앱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구재희 코오롱FnC 부장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짜내 '내가 신고 싶은 신발' '내가 들고 싶은 가방'을 선보인 게 아카이브 앱크"라며 "빠르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재고 부담도 적은 사업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OTT, 꼭대기 위에?

미국 여행 중 호텔에서 노트북으로 넷플릭스에 들어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노트북을 HDMI 케이블로 TV에 연결하고는 큰 화면으로 편하게 보았다. 시차 때문에 잠이 안와 내친김에 내리 3편을 보았다. '정주행'을 한 것이다. '정주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럼 OTT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Over The Top'은 '꼭대기 위에' 이니까 최고의 위치를 뜻하는데 하늘이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기존의 공중파 TV 방송국이 많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케이블 TV 방송국이 생겨났고 인터넷 TV(IPTV)가 등장했다. TV로 케이블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같은 별도의 도우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set-top box 이다. OTT는 단말기를 통해 영화나 TV프로그램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주문형(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다가 이제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있다. 무서운 병 '노모포비아(모바일 결핍 공포증·No-Mobile-Phobia)'에 걸려 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매달 100시간은 된단다. 내 경우엔 그 이상인 것 같다. 내 페이스북 친구가 어느 사이 1천명을 넘었고 수백 명이 친구되어 있는 카톡은 밤낮없이 카톡거린다. 이메일도 그렇다.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의 70%는 도착하고 평균 6초 만에 열린단다. 끊임없이 무언가 확인하고, 수신함에 '읽지 않은 메일'이 없는지 보고 또 보는 강박을 가진 현대인들은 '목표 중독' 이란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매이는 시간은 자꾸 늘어날 것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빨리,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고 내비 없이는 길을 찾기가 어렵고 간단한 셈도 계산기 앱을 쓰게 된다. 동영상 시청 플랫폼 가운데는 '유튜브' 이용률이 압도적이고 교육용 콘텐츠가 많은 TED의 인기가 높다. 유료 콘텐츠 업체로는 '넷플릭스'가 싸쌀이 하다시피 하고 있다.

모르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OTT 시장을 거의 다 차지했다. Netflix, Hulu가 대표적인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pple과 Amazon 등 ICT 분야의 기업들도 OTT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OTT 서비스에 눈을 들었다. 중국내에서 한 해 1만6000편이나 쏟아진다. 한류는 커녕 이 중국 드라마가 한국으로 역류할 사정이고 미국과 중국이 거대자본으로 문화를 염색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 중국의 OTT서비스 플랫폼 웨이라이(未來)TV는 한국어 방송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OTT를 막았다. 알리바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유우쿠' (Youku), 텐센트의 'V,QQ.com', 바이두의 '아이치이' (iQIYI) 앱으로 자국의 OTT를 보게 한다.

우리나라의 OTT 서비스는 왓차의 '왓차플레이', 지상파 연합과 SK텔레콤의 'pooq'과 옥수수, CJ 헬로비전의 티빙(tving), 현대HCN의 에브리온 TV, 아프리카TV, 딜라이브 플러스, 이동통신사의 OTT 등이 있지만 큰 데로 물리는 쓸림현상 때문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점유율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한류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규제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노라니 안타깝고 짜증난다. 방송-통신은 통신-방송으로 주도



조기조 교수

권이 바뀌었다. 신문이 글자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새 소식을 듣는다?는 신문(新聞)은 통신(通信)으로 보고 듣는 신문(信聞)이 적절할 것 같다. 하기가 TV를 전자적으로 보고 듣는 전시(電視)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다.

'정주행'이란 정속주행이 아니다. 쉬지 않고 달린다는 몰아치기, 몰아보기이다. 한 더위에 피서로는 에어컨 틀고 치맥을 즐기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래도록 누워 보노라면 온 몸이 쭈실 것이고 눈은 침침해진다. 체중은 또 몰라보게 늘 것이다. 원래 인간은 아날로그로 살게 되어 있다. 덩다말고 나가 돌레길이라도 걸어보면 흐르는 땀이 식으면서 오는 시원함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것이다. 밥맛도 난다. OTT도 좋지만 주인공의 숨소리가 들리는 극장이나 음악회, 아니면 운동장에서 손뼉 치며 울고 웃어보자. 걸어야 산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한-인니 CEPA 9차 협상 제주서 개최... 연내타결 가속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이 28~30일 제주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이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별로 진행된다. 양국은 올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4~5월 공식 협상 및 6월 회

기간 협상 등을 통해 계속 입장차를 좁혀오고 있다. 11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도출할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만 뺌바교(Iman Pambagyo) 무역부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무부, 산업부 등으로 이뤄진 대표단이 참석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중 한국의 2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200억 달러)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간 CEPA 체결은 신남방 거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교역을 다변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베트남 의류, 가죽, 신발 수출 전년대비 10% 성장

올 1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의 의류, 섬유 및 가죽신발 수출이 전년 대비 10.5% 늘어난 183억4000만달러(약 22조3014억원)를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각) 베트남플러스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MoIT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의류 및 가죽신발 수출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베트남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덕분에 활발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70억달러로 전년 대비 10% 늘었고, CPTPP 시장과는 25억달러를 기록해 9%가

증가했다. EU와는 19억5000만달러로 5% 늘었으며, 한국으로는 14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베트남 섬유유류협회는 올해 업계 수출 목표액을 400억달러로 설정한 상태로, 이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수준이다. 협회장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 섬유 및 의류, 가죽신발 수출 총액의 42%를 차지해 여전히 최대 수출시장으로 남을 전망이며, EU는 21.5%, 일본이 19.5%, 한국이 14%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동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뉴스핌)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KOFA의 힘 창간 다섯돌 맞아. 제인니 한국신발협의회 정통 소식지로 자리잡아



월간 코파의 힘이 창간 5돌을 맞이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분의 협회와 단체에서는 대체로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해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와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KOFA는 꾸준히 그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왔다

제인도네시아 신발협의회(회장:신만기)에서 발행하는 코파의 힘은 그간 인도네시아 한국 신발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소식 및 동향을 상호 공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전지역 무료 배송해 왔었다.

대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은 물론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10여개국 약 7,000명의 독자에게 배포

되었다.

인도네시아 최대 직능단체인 코파는 월간 코파의 힘을 통해 협회 회원사간 단합을 도모했으며 올해로써 코파 창립 11주년을 맞이해 제인니 한국 신발협의회와의 탄탄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코파는 초대 송창근 회장의 창립으로 시작해 꾸준히 발행되어 코파의 힘 발행이 타 협회의 부러움을 받고있는 이유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한국기업의 공통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앞장섰고 대정부 건의등 우리 교민기업을 위한 모범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힘의 바탕으로 월간 코파의 힘은 창간 5주년

을 계기로 보다 더 알찬 내용과 정보로 한국 신발산업의 눈과 귀가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모범이 될 협회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코파의 힘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편집되고 있으며 매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으로 타 매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소식지의 지면 편집디자인은 기존 매체와 다른 디자인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였다.

본지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지면구성으로 코파 회원사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나갈 것을 창간 5돌 즈음에 약속하고 지속적인 발행으로 우리 신발인의 벗이 되고자 한다.

인니 정부, 내년 공휴일 및 르바란 연휴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7일, 2020년의 공휴일과 유급휴가일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공휴일은 총 16일이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은 5월 24일(일)~25일(월)로 설정했다.

르바란 연휴는 5월 21일의 공휴일(예수승천일, Kenakan Isa Al-Masih)과 22, 26,

27일 3일간의 유급휴가일을 비롯해 토요일을 합치면 총 7일간의 연휴가 된다.

유급휴가일은 르바란 전후 3일 및 12월 24일(크리스마스 이브)의 총 4일이다.

한편 올해 공휴일은 총 16일로 르바란에는 최장 11일간 황금연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화승...아이템 다변화 시도



신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업체인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화승엔터 측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신발에 이은 다른 아이템을 생산해 생산품 다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올해 2분기 2948억612만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같은 기간(2323억1999만 원)과 비교해 26.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73억6856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8129만 원)대비 49.9% 증가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순이익은 99억4218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6억5893만 원과 비교해 113.4% 늘어났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고성장을 이르고 있고 신발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하려고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5월 베트남 스포츠 모자 생산 업체인 '유니팍스'를 인수했다.

(리더스경제)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청춘을 응원합니다” ... 슈펜, ‘슈탠다드 스니커즈’ 증정 이벤트 진행



에 5800명의 고객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새롭게 출시했다.

당첨자에게는 본인이 응원한 20대 청춘에게 선물할 슈탠다드 스니커즈 1족과 당첨자 본인이 착용할 수 있는 1족을 제공한다.

슈펜 관계자는 “15mm 버진폼 쿠션의 편안한 착용감과 발수가공 코팅 아웃솔로 언제나 새 신발처럼 신을 수 있는 슈탠다드 스니커즈는 꿈을 위해 달려가는 청춘을 위한 스니커즈다”며 “슈펜을 사랑해주시는 20대 청춘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의 베이직’이라는 콘셉트로 운영하는 슈펜은 앞서 슈탠다드 스니커즈의 차별화된 품질과 다양한 색상 알리고자 3000명 대국민 체험 대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20대 청춘 응원 이벤트는 그동안 진행해온 신상품 홍보 프로모션과 슈펜의 사회 공헌 활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캠페인이다.

지난 3월 슈펜은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상품 판매시마다 900원씩 굿네이버스에 전달되는 협업 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슈펜은 이번 20대 청춘 응원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오는 9월 굿네이버스 협업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신발 편집매장 브랜드 슈펜(SHOOPEN)은 20대 청춘들을 응원하며 ‘슈탠다드 스니커즈’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슈펜은 지난 18일 걸그룹 오마이걸 아린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함께한 새로운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20대 청춘들을 위한 ‘슈펜 청춘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슈펜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춘 응원 캠페인은 저마다의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20대 청춘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오는 9월 16일까지 20대 청춘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슈펜 공식 인스타그램의 간단한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참여자 200명에게 슈탠다드 스니커즈를 증정한다.

슈탠다드 스니커즈는 신발의 새로운 기준(스탠다드)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가진 신발이다.

누적 판매 300만족을 달성한 대표 상품인 베이직 스니커즈

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1
몇 년전 전세계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오빤 강남 스타일’도 이젠 들을 기회가 잘 없어졌습니다.

2019년 르바란 열하루의 긴 휴가 중에 음악공부를 좀 해서 우리 신발동지들에게

클라식 음악의 세계로 가까히 가도록 해 보자 하여 열공을 시작 했습니다.

당신의 머리 속에는 신발과 골푸 반반씩 박엔 없다는 마누라의 핀잔에서도 면피하고자...

건방진 시도 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옛말에 ‘노니 염불한다고’ .. 일단 염불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유투브라는게

4. 바로크 (Baroque) – Vivaldi, Handel, Bach *Bach 사망 : 1750 년

5. 고전시대 (Classic) – Hayden, Mozart, Beethoven *Beethoven 사망 : 1827 년

6. 낭만시대 (Romantic) – Weber, Schubert, Mendelssohn, Schumann, Berlioz, Liszt, Chopin, Brahms, Verdi, Wagner

7. 근대 혹은 국민악파 (Modern & Nationalism) – Grieg, Smetana, Sibelius

8. 현대 (Contemporary) – John Cage

*** 주요 작곡가 ***

Baroque (바로크시대)
1. Antonio Vivaldi (Italy 1678–1741)

2. Georg Friedrich Handel (Ger-

1880) * 피아노의 왕

13. Frederic Francois Chopin (Poland 1810–1849) * 피아노의 시인

14. Johannes Brahms (Germany 1833–1897) * 독일 낭만파의 대가

15. Giuseppe Fortunio Francesco Verdi (Italy 1813–1901) * 오페라의 왕

16. Richard Wagner (Germany 1813–1883)

17. Anton Bruckner (Germany 1824–1896)

18. Peter Ilyich Tchaikovsky



임철우의 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1,2

생겨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금 비발디 (Vivaldi) 의 첼로 소나타 RV 47 을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들었습니다. 좋은 곡이네요.

나중에 독심이 없어 신발에서 손을 놓는다면 바다가 보이는 언덕위에 집을 얻어 야심한 밤에

‘드뷔시 (Debussy) 의 피아노곡 달빛’ 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데부씨 라고 부릅니다.

8세기 시리아 왕이 스페인 안달루시아를 정복하여 살았는데 고향에서 가져다가 심은 대추 나무를 보고 죽기 전에 지은 시가 생각 납니다.

그대도 날 닮아 고향을 떠나서 타관 땅에 뿌리를 내리고는 먼 하늘을 그리는가 ...

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2
*** 음악사의 8 시대 구분 ***

1. 고대 (Ancient)

2. 중세 (Middle Age)

3. 르네상스 (Renaissance)

many 1685–1759)

3. Johann Sebastian Bach (Germany 1685–1750) * 음악의 아버지 Classic (고전시대)

4. Franz Joseph Haydn (Germany 1732–1809) * 교향곡의 아버지

5. Wolfgang Amadeus Mozart (Germany 1756–1791) * 음악의 신동

6. Ludwig Van Beethoven (Germany 1770–1827) * 음악의 성인 (악성)

Romantic & Nationalism (낭만시대 & 국민악파시대)

7. Carl Maria von Weber (Germany 1786–1826) * 낭만파의 새벽종

8. Franz Peter Schubert (Germany 1797–1828) * 가곡의 왕

9. Jacob Ludwig Felix Mendelssohn – Bartholdy (Germany 1809–1847)

10. Robert Alexander Schumann (Germany 1810–1856) * 음악의 시인

11. Louis Hector Berlioz (France 1803–1869) * 표제음악의 완성자

12. Franz Liszt (Germany 1811–

(Russia 1840–1893)

19. Antonin Dvorak (Czech 1841–1904)

20. Charles Camille Saint-Saens (France 1835–1921)

이 외에도 훌륭한 작곡가는 많으나 20인으로 축소하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작곡가들 80% 정도가 독일출신입니다. 아마 독일인의 수학적인 머리가 영향을 끼친거 같습니다.

이태리에서 시작해 독일로 가서 꽃을 피우고 낭만 & 국민악파 시대에 구라파 전체로 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Baroque 시대의 바로크란 말은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 라는 말입니다.

음악사에서 중요한 년도가 1750년 (Bach 의 사망으로 Baroque 시대가 끝이 나고 고전시대가 시작)

그리고 1827년 (베토벤의 사망으로 고전시대가 종료) 입니다.

고전주의 3인방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 하모베 시대에 서양음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궤자바 “레바나 경제특구, 현대차가 투자 관심”



▲ 리드완 까밀 서부 자바 주지사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의 레바나 경제특구(KEK Rebana)에 한국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2021년부터 조립 생산을 개시할 계획을 표명했으며, 공장 건설 지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자 현지 인베스터 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관계자는 레바나 경제특구 투자에 현대자동차와 일본 기업의 총 2개사가 강한 관

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레바나 경제특구는 서부 자바 북부 짜레본, 빠뽀반, 끄르 따자띠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조성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 가능한 토지는 5만 4,000헥타르로, 이 중에서 빠뽀반 지역은 일본의 엔차관으로 향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리드완 까밀 서부 자바 주지사는 지난 5월 레바나 경제특구개발 구상에 대해 다르민 나수피온(Darmin Nasuti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리드완 주지사는 레바나 경제특구에 대해 “주의 여러 산업 분야로 구성되어 실현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넓이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해 조꼬 위도도

(통칭 조꼬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2021년에 조립 생산을 시작하는 투자 계획을 표명했다.

- * 행사개최일 : 8.28 / 9.25 / 10.30 / 11.27 (총 4회 시행)
- * 행사시간 : 17:00~21:00 (영화상영 19:00~)
- * 행사내용 : ▲영화상영 ▲영화출연 배우 신발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팝업매점 운영
- * 행사신청 및 문의 : 한국신발관 홈페이지(<http://k-shoes.kr>) 또는 안내데스크 (☎051-898-9300)
- * 참가자 선착순 20명 주방세제 증정(1만원 상당), 참가자 전원 팝콘, 기념품 무료 증정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KYUNGWON
COMPRESSOR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함 압축공기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1.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2.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3.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4.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p>PT. KYUNGWON CENTURY KORAIR</p> <p>INDONESIA OFFICE</p> <p>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p>	<p>JEPARA OFFICE</p> <p>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p>	<p>KOREA OFFICE</p> <p>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www.dbkw2000.com</p>
---	---	--

중자바 끈달, 자바섬 최초의 경제특구로...시행령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북부 술라웨시섬 북단의 리꾸빵(Likupang)과 중부 자바주 끈달(Kendal) 2개 지역을 경제특구(KEK)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 국가경제특구위원회가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리꾸빵은 관광특구로, 끈달은 산업특구로 개발한다. 끈

달 경제특구는 실현되면 자바섬 최초의 산업특구가 된다. 두 지역의 경제특구 내용은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제안되어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끈달을 경제특구로 하는 계획은 싱가포르 정부계 복합 기업 섴코프 개발(Sembcorp

Development)과 현지 산업단지 개발사 자바베카(PT Jababeka)의 합작사 끈달 인더스트리얼 파크(PT Kendal Industrial Park, 이하 KIP)가 제안했다. KIP는 중부 자바 스마랑에서 서쪽으로 약 20km의 끈달 공단을 개발한다. 리꾸빵 관광특구는 북부 술

라웨시섬의 북단에 위치한 북부 미나하사(Minahasa) 지역에 개발된다. 현지 신펀사 그룹(Sintesa Group)의 미나하사 퍼르마이 리조트 개발(PT Minahasa Permai Resort Development, 이하 MPRD)이 특구 개발을 제안했다. 술라웨시섬에는 이미 비풍경



제특구가 천연 자원과 광물 가공 산업이 집적하는 산업특구로 개발되고 있다. 리꾸빵 특구는 실현되면 술라웨시섬 최초의 관광 경제특구가 된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한인고객 위한 특화지점 오픈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자카르타 그랜드위자야 센터 내 지점 오픈 (사진=신한인도네시아은행)

자카르타 다르마왕사 지점, 그랜드 위자야센터 내 소재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8월 28일 자카르타 다르마왕사 지점(그랜드 위자야 내 소재)을 새롭게 오픈했다.

현재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 53개 영업점을 운용 중이며 자카르타에 만 14개 영업점이 있다. 이번 자카르타 다르마왕사 지점은 한인 커뮤니티 지역 내 접근이 부족하여 은행 방문이 쉽지 않았던 한인고객을 위해 특화 점포로 향후 운용될 계획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김영상 국세관, 한인회 박재한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지역 내 5명의 인니 주민을 지원하는 CSR 활동으로 화려한 개점식을 대신했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황대규 은행장은 현재 한국계 기업을 위해 전담 솔루션팀을 운용 중이며 9월에는 모바일 앱 Sol을 런칭하여, 인니 은행과는 차별화된 디지털 뱅킹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ol은 통해 은행 방문없이도 최대 80%우대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문의 : 전략기획부장 박희진 (0821 2651 2630)
한인기업금융 솔루션팀
부장 황준규 (0821 1239 4057)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PT. KEINTECH

PT. BIO-TECH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신주,철..)
TPR,PU,PVC

금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코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스크린

인쇄

패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풋웨어 성능을 좌우하는 신소재가 뜨고 있다



▲ 사늑의 치바 저니 (Chiba Journey) 보다 빠르고 가벼우며 내구력이 좋고 착화감이 좋은 신발을 만들겠다는 바람은 풋웨어 산업에서 대규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한편, 소비자들은 평상복을 간소화하고 특별한 장식을 줄이고 싶어하는 트렌드를 보이면서, 패션에 기능을 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능성에 집착하는 아웃도어 세계에서는 거친 자연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소재에 관심을 보였고 소비자들은 그 기능을 일상적인 러닝과 일상생활에도 적용하길 바랐다.

다음은 곧 새로 접하게 될 신소재에 관한 내용이다.



▲ 비보베어풋의 프리머스 니트 울 (Primus Knit Wool)

봄 열기

울은 온도 조절 속성이 있어 추운 기후의 풋웨어에 안정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 봄, 많은 풋웨어 브랜드들이 의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즉, 울을 봄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루카이는 페후아 리 상품을 울로 제작하고 있으며, 솔도 재스퍼 에코 플립 (Jasper Eco Flip)을 메리노 울과 재활용 PET로 생산하고 있다.

자연운동 전문기업 비보베어풋의 경우, 2020년 봄 상품을 위해 울마크 (Woolmark)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재활용 소재 또는 천연 소재를 찾았다. 그리고 그 결과, 프리머스 니트와 마그나 트레일 레더 상품을 출시했다.

"메리노 울의 천연 통기성과 온도 조절 기능으로 1년 내내 편안한 신발

을 제작할 수 있다." 고 솔의 Karla Peckett 이사는 말했다.

"촉감이 부드러워 맨발로 신는 신발의 어퍼와 샌들의 스트랩에 완벽한 소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울을 무겁고 따뜻한 소재로 생각하지만, 경량의 탄력성 있는 니트에 사용하게 되면 합성 섬유보다 오래 지속 가능하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 비브람의 XS 플래시 2 화합물은 마킹이 없으며 블랙 외에도 다양한 색으로 출시됐다.

지속적인 발전

이탈리아 아웃솔 전문업체인 비브람이 신소재 XS 플래시 2를 개발했다.

접착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이 아웃솔은 검정색 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그리고 이 신소재는 추운 날씨에도 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한편, 비브람은 생생한 청록색의 신소재로 만든 산악용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 (이 색상은 비브람의 시그니처가 됐다.)

비브람에 따르면, 이 소재는 현재 비브람 파트너사에서 사용 중이며 조만간 산악 라인에 추가될 것이다.



▲ 노스페이스의 액티비스트 퓨처라이트 로우 (Activist Futurelight Low)

노스페이스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노스페이스가 2019년 의류 부문에서 독점 기술인 나노스펀 퓨처라이트 통기성 기술을 적용했을 당시 노스페이스의 새 시대가 열렸다.

노스페이스는 2020년 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풋웨어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노 크기의 노즐을 통해 폴리우레탄을 분사해 만든 필름인 퓨처라이트는 밀도가 높아 물이 스며들지 않지만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 입자는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 기능이 있어 용도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소재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 패브릭에 신축성을 가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

성도 개선할 수 있다.

퓨처라이트는 PFC가 들어있지 않은 100%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졌다. 이 기술을 적용한 상품에는 기능성 울트라 트랙션 퓨처라이트 (Ultra Traction Futurelight)와 패스트팩 IV (Fastpack IV) 부츠가 있다.

사늑이 풋웨어 부문에 유렉스를 도입하다

사늑은 이미 신소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늑은 올 가을 풋웨어에 유렉스 (Yulex) 고무를 사용하는 최초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 올루카이의 페후아 리 (Pehuea Li)

식물성 성분인 유렉스는 따뜻하고 내구력이 뛰어나며 신축성이 좋고 방수 기능이 있어 낚시와 하이킹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적합하다.

출처: Footwear Insight

보세참고 기준규격

해킹 걱정까지 없어야 진짜 보안입니다

HS View

HS View의 영상 데이터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합니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폭 놓으세요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뷰 출시!

Cloud CCTV HS View

HS View. 이런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지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일반 CCTV	VS	HS View
잡은 해킹으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보안/기술력	전문 방화벽이 작동하여 해킹의 위협에서 안전
본체 또는 녹화장비	영상저장	IDC 클라우드 서버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	비용	구축비용 없는 월과금 방식

영업문의: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021 4000 2436~9

2019년 가입 고객을 위한 하나스타의 특별한 혜택: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www.hanastar.net.id

CWI ERP

한국의 전문개발업체와 함께 개발한 SaaS 기반 ERP

세관 Inventory, 경영분석 지원까지 다양한 패키지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세 구역 전산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 집니다.

01 Sales

02 Purchasing

03 Inventory

04 Production

05 HR

06 Budget

Accounting

Performance

www.cyberworld.co.id

PC현대 구매가격으로 세관 IT Inventory 시스템 사용 가능

2019년 특별 프로모션

www.cyberworld.co.id

데모 사이트

적시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ERP, CWI ERP로 해결하세요!

-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세관 승인 획득완료
- 중/소규모부터 메이저급 봉제회사까지 사용가능한 Customizing
- 프로모션 기간 무료사용, 분할납부 등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견적 요청 / 데모 신청
sales@cyberworld.co.id

기능성이 중요한 남성용 트레일 러닝화 Top 3



오프로드용 신발을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형이 다양하고 거칠기 때문에 안전성과 편안함 모두를 고려해야

살로몬의 맨스 스피드크로스 4 트레일 러닝화 (Men's Speedcross 4 Trail-Running Shoe)

살로몬의 업그레이드 된 스피드크로스 트레일화는 진흙길과 거칠 트레일 지형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고 마찰력 기능을 강화했다.

장점: 이 신발은 발을 마치 장갑처럼 감싸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러질 염려가 없고 달리는 동안에도 신발 안에서 발이 견도는 일이 없다. 메쉬 어퍼는 통기성이 좋으며 방수가 되기 때문에 금방 건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적당한 쿠션이 있어 오래 걸어도 편안하

한다. 완벽한 오프로드 신발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더 볼 것도 없다. 산악길을 달리는 러너를 위한 고급스러우며 안정적인 트레일 러닝화부터 평탄한 길을 달리는 러너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엄선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기능과 스타일에 관계 없이 모두 날카로운 바위와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무 토타캡이 장착돼 있다.



고 안정적이다. 탈부착이 가능한 충격 흡수 깔창이 있으며 항균 속성이 있어 악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초경량이어서 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단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멘의 젤 카하나 8 (Gel-Kahana 8)
이 적당한 가격의 상품은 일반 도로부터 트레일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리버스 러그 밑창은 다양한 지형의 오르막길

과 내리막길에서도 뛰어난 마찰력을 보인다.

장점: 중립적인 발 형태를 지탱하기 위해 고안된 이 신발은 에너지 반동 쿠션과 이중 밀도 미드솔, 뒤꿈치의 충격 흡수 기능이 특징이다.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패드 칼라와 덩이 장착돼 있다. 또한 메쉬 어퍼로 발을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단점: 토타캡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 무겁다.

머렐의 맨스 트레일 글러브 4 러너 (Men's Trail Glove 4 Runner)

머렐의 트레일 글러브 4는 맨발로 달리는 느낌을 흉내냈지만 가벼운 트레일에도 적합할 정도로 보호 기능을 갖췄다.

장점: 이 깃털처럼 가벼운 상품은 통기성이 있는 메쉬 어퍼와 보호 패드가 특징이다. 한편, 비브람 (Vibram) 아웃솔로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단점: 이 상품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발바닥 지지대가 지나치게 돌출돼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고강도 운동 시 착용하는 여성용 크로스 트레이닝화 Top3



운동 루틴에 맞는 운동화에 투자한다는 것은 운동 능력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육관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다른 격렬한 운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크로스 트레이닝 운동화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 러닝화와는 달리, 크로스 트레이닝 운동화는 횡적 움직임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넓고 탄력적인 아웃솔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농구 코트에서 회전을 할 때에도 용이하다. 게다가, 토타캡이 넓어 발이 편안하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다음은 엄선한 여성용 크로스 트레이닝 운동화 3종에 관한 내용이다.

리카의 우먼스 인플루언스 크로스 트레이너 (Women's Influence Cross-Trainer)

에너지 반동 쿠션과 아웃솔의 특별한 풋플리트 디자인이 특징인 이 상품은 중심점이 있어 움직임이 쉽다.

장점: 이 상품은 패드 텅과 칼라가 특징이다. 그리고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고 이중 폼 미드솔 덕분에 발바닥 지지력이 우수하다. 또한 리카의 시그니처인 플렉스 호일 (flex-foil) 쿠션도 장착돼 있다. 그



외에 경량에 통기성도 좋다.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다.

단점: 토타캡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뉴발란스의 우먼스 퓨얼코어 너자이즈 (Women's FuelCore Nergize)

슬림은 디자인의 이 상품은 적당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다. 가볍고 폭신하며 스

타일리쉬한 디자인으로 일상용으로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다.

장점: 30가지 이상 색상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어떤 옷에도 어울릴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슬림은 디자인이지만 안정감을 위해 신발끈도 더했다. 통기성이 우수한 어퍼와 경량의 미드솔, 탈부착이 가능한 메모리폼 인서트도 특징이다. 그리고 발볼이 넓게 출시됐다.

단점: 이 상품은 발바닥 지지대가 다른 상품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오래 신고 있으면 불편할 수 있다.

푸마의 우먼스 타존 6 FM 크로스 트레이너 슈즈 (Women's Tazon 6 FM Cross-Trainer Shoe)

스포티한 디자인의 이 신발은 뒤꿈치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드와 안정감을 더하는 견고한 TPU 받침대가 특징이다.

장점: 고무 아웃솔로 마찰력을 강화했으며 통기성 좋은 양말 스타일의 안감으로 내부를 쾌적하게 만들었다.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발볼이 넓은 디자인이다.



단점: 발 형태에 따라 발바닥이 불편할 수도 있다.

KOFA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858-9060-0962 (mr. kang)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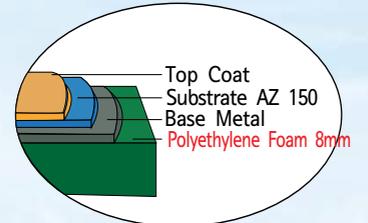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미중 무역분쟁, 인도네시아 경제에 도움 안 돼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수출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 같이 좀더 매력적인 역내 경쟁국으로 몰렸다. 이에 따라 조그 위도도 대통령은 가뜰이나 무거운 어깨에 수출과 투자 부양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라는 짐을 더 얹게 됐다.

인도네시아 무역수지가 6월에 전년 동기간 대비 3억 달러 흑자에서 7월에 6,3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월부터 7개월 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는 지난 27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도 위축됐으며, 서유럽 경제대국 독일도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15일 수하리안또 중앙통계청장에 따르면, 국제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일본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석탄과 팜유(CPO)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대 중국 수출액이 7개월 간 136

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68% 감소했고, 미국 수출액은 99억2천만 달러로 1.95% 감소했으며, 일본 수출액은 79억1천만 달러로 18.37%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주춤해진 국가들이 원자재 수입을 줄였다. 국가 간 관세보복도 국제 무역과 경제를 악화시키고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발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출 부진에 투자 둔화까지 겹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5.05%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두 번째 동력인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7월에 5.58%에서 올해 7월에 5.01%로 감소했다.

투자 증가세 둔화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서 베트남과 달리 인도네시아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 소속 경제학자 피트라 파이산 하스띠아디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세계 무역 감소 영향을 극복할 만큼 강력하지 못해서 올해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무역적자액이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산은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만한 정부의 노력이나 획기적인 정책이 아직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무역분쟁의 전선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조차 유럽연합과 무역분쟁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미중 무역분쟁을 피하려는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경쟁국에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인도네시아 제조업 발전에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파이산은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산, 에너지, 노동,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훨씬 더 포괄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투

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생산기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초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기업인들은 조그위

정부의 경제부양책에 큰 감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인도네시아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주목했다.

응답자들은 인도네시아 투자의 장래로 규제환경(78%), 관료주의 비효율(75%), 투자금지분야(네거티브 리스트) 등을 꼽았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 Poly Bag (LDPE, HDPE, PP, EVA)
- Garbage Bag
- PE Sheet (plain, embossed)
- Zipper Bag
- PVC Bag
- Shopping Bag
- OPP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